세월호 다큐 '그날, 바다' 광주극장서 만난다

광주극장 프로그램 다채

27일 감독 김지영·김어준 등 '관객과의 대화'

5·18 다룬 '박하사탕' 디지털 버전 26일 재개봉

'그날, 바다' 김지영 감독

제작자 김어준

영화 '클레어의 카메라'

광주극장이 영화 '그날, 바다'의 감독 김지영과 제작자 김어준이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마련해 화제다. 또한 홍상수 감독의 신작,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만나는 '박하사탕' 등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지역 팬들의 기대를 낳고 있다.

지난 12일 개봉해 정치·시사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최단 기간 20만 명 관객을 돌파한 영화 '그날, 바다'의 관객과의 대화가 27일 오후 7시30분 영화 상영 후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김지영 감독과 제작사 '프로젝트 부'의 김어준 총수가 참석하고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진행자로 참여한다.

영화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추적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침몰 원인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증거로 접근하는 추적 다큐멘터리로, 4년간의 치밀한 취재 과정에 배우 정우성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해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인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이자 제70회 칸 영화제 초청작인 '클레어의 카메라'는 오는 26일 개봉한다. 영화는 69회 칸영화제가 치러진 기간 동안 실제 칸에서 촬영됐으며 여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김민희의 첫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같은 날 개봉하는 '당신의 부탁'은 201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나리오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그래픽노블로 발간되고, 명필름의 39번째 영화로까지 이어진 작품이다.

사고로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32살 효진(임수정) 앞에 남편의 아들 16살 종욱(윤찬영)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두 사람의 좌충우돌 동거를 그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쩌다 가족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의 예측 불가한 드라마를 이동은 감독 특유의 스타일로 풀어내 제24회 브졸 국제아시아영화제 장편 경쟁섹션 공식 초청 및 넷팩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이창동 감독의 두 번째 작품 '박하사탕'도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26일 재개봉한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한국영화 개막작(제4회)을 시작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로, 배우 설경와 문소리의 첫 장편영화 주연작이다.

마흔 살 '김영호'의 20년 세월을 7개의 시간과 공간으로 거슬러가는 '박하사탕'은 '김영호'의 20년 삶을 관통하는 80년 5월 광주의 트라우마를 통해 역사의 상처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밀하게 보준다.

한편 광주극장에서는 매월 1회씩 광주전남지역 문화계 영역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을 초빙해 자신이 추천하는 영화를 함께 보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2018 시네마 가이드 맵'을 개최한다. 5월 2일 오후 7시에는 짐 자무쉬 감독의 '패터슨'을 통해 관객과 만나며 영화 상영 후 이 영화를 추천한 나희덕 시인과의 토크가 이어진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80년 5월 어린이는 무엇을 보았나

연극 '바퀴자국' 27·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연극 '바퀴자국' 공연 모습.

"80년 5월 영수와 윤희는 무엇을 보았는가?" 초등학생들의 시선에서 풀어낸 5·18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사람사이'가 5·18 이야기를 담은 연극 '바퀴자국'을 선보인다.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28일 오후 4시와 7시 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연극은 극단 사람사이가 2014년 창작해 '2014 광주연극제'에서 우수작품상, 남녀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기존 5·18 연극과는 달리 초등학생들의 시선에서 그리는 5·18이라는 점이 색다르다.

연출·각색은 송정우가 맡았으며 주혁준 작가와 안윤국 조연출이 참여했다. 이기인, 윤미란, 이영환, 장은지, 송민종, 한종신, 정다현 등이 출연한다.

극단 사람사이는 매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며 광주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극단으로, 지난 2016년에는 지역 민간극단으로는 드물게 배우 24명, 스텝 포함 총 3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노부인의 방문'이라는 작품을 제작 한국연극협회 베스트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극은 극단 사람사이 다음카페(cafe. daum. net/ human?bridge/ Ud9R/1)와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관람료 일반 2만 원, 청소년 1만 원. 문의 010-2054-4280, 010-3864-994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남북회담 평화협정' 기원

6개 종단 오늘 기자회견

광주전남 6개 종단 종교인들은 23일 오후 2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기원' 기자회견을 갖는다.

6개 종단 종교인들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도 '민간교류 활성화', '경제협력', '평화협정 이후 DMZ 평화구역 선포'의 필요성을 적극 의제화하고 필요하면 관계국을 적극 설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의 계기,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등에 대한 북의 전향적 입장에 상응하여 군사대결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담대한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63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초등부 입상자 명단

〈심사위원〉
이훈진 (세한대 교수)
함정욱 (남부대 교수)
서윤진 (광주교육대 교수)
박보윤 (호남신학대 교수)
선수정 (경상대 교수)

◇ 피아노 초등부 1,2학년
▲ 최고상
32 문희주(순천왕운초1)
▲ 금상
8 이주혜(효덕초2)
21 최한별(지평초2)
▲ 은상
2 이시흔(광주장원초2)
4 박나현(효덕초2)
22 고성준(삼각초2)
26 유가인(광주남초2)
29 김가은(광주교대광주부설초2)
42 김서연(빛누리초1)
45 김연주(광주학운초2)
50 김서연(목포부주초2)
▲ 동상
5 장율아(광주효덕초2)
6 양예령(월계초2)
14 최서린(신창초2)
16 표지수(목포미항초2)
17 황성인(신창초2)
19 김도영(조봉초2)
20 김연진(화순초1)
23 전여랑(광주학강초2)
25 김가영(대자초2)
27 김태희(삼각초2)
31 유진하(은빛초2)
38 김주혜(조봉초2)
51 김하윤(광주남초2)
54 최명선(광주불로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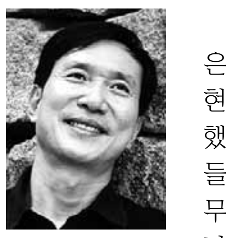
◇ 피아노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4 나지연(목포영산초5)
▲ 금상
12 장은서(큰별초6)
31 김태헌(광주교대광주부설초6)
89 양승민(만호초6)
93 양준혁(광주건국초6)
100 김연서(전주만수초6)
105 황시후(불로초6)
▲ 은상
10 이준범(봉산초5)
14 황수홍(수문초6)
19 김민서(목포부주초6)
29 전서영(전주전일초6)
55 이하나(전주반월초5)
61 이시우(대자초5)
95 한규민(대자초5)
▲ 동상
8 박가인(목포영산초5)
9 정예진(광주봉산초6)
11 한주원(태봉초6)
16 문성현(화순초6)
20 이우진(광주상무초6)
26 정세원(고실초6)
33 이담혜(살레시오초6)
39 김민채(익산궁동초6)
48 김채운(첨단초5)
50 송민경(일곡초5)
56 최송이(광주지산초6)
60 이하은(사창초6)
66 홍지원(주월초5)
71 홍지원(광주송원초6)
74 김지우(은빛초5)
76 정은효(만호초6)
77 양다희(영암독천초5)
92 정혜린(송정초5)
99 오대철(오정초5)
108 조하은(태봉초5)

〈심사위원〉
김신영 (목포대 교수)
유정아 (광신대 교수)
허정화 (순천대 교수)
조성경 (남부대 교수)
박효정 (한일장신대 교수)

◇피아노 초등부 3,4학년
▲ 최고상
108 윤경환(조봉초4)
▲ 금상
10 김다희(태봉초4)
20 임예준(태봉초3)
26 최빈아(마한초3)
37 소중한(천서초4)
39 정연우(문정초3)
51 김아린(만호초4)
100 김연수(목포영산초4)
123 박수현(태봉초4)
▲ 은상
6 김예은(태봉초3)
13 노연희(만호초4)
17 박서희(신창초3)
24 양승혁(만호초4)
41 이나영(효천초4)
45 황서연(목포영산초3)
53 홍제희(목포애향초4)
65 김단이(대자초4)
72 정소윤(수완초3)
84 이지원(광주송원초3)
87 박재희(목포영산초4)
110 김태우(살레시오초4)
111 이지혜(태봉초3)
126 권유진(불로초4)
127 김세중(수문초4)
▲ 동상
2 이성효(광주장원초4)
18 김하원(화개초4)
21 송태현(계림초4)
22 신혜린(송정초4)
36 조윤진(군산지곡초3)
38 이인영(광주효덕초4)
52 조민지(광주효덕초4)
62 김태연(문산초3)
63 문송현(태봉초4)
67 박민준(계수초4)
68 문서영(불로초4)
74 박해서(조봉초4)
77 김지율(광주진제초4)
78 구채현(광주교대광주부설초3)
82 김가은(운천초3)
89 고현서(오룡초3)
90 박현준(목포애향초3)
92 유시연(목포영산초3)
104 김예린(운천초3)
105 황수련(만호초4)
109 양송민(광주봉산초4)
116 이지후(광주장원초4)
121 조예서(율곡초4)
124 김태호(나주빛가람초3)
128 김지우(일곡초4)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제4회 박영근작품상에 김수상 시 '미움은…' 선정



박영근(1958~2006)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제4회 박영근작품상에 김수상〈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미움은 미워하며 자라고 사랑은 사랑하며 자란다'.

박영근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박영근 작품상'은 전북 부안 출신의 고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올곧은 정신으로 치열하게 창작활동을 펼치는 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

한편 김수상 시인은 2013년 '시와표현'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사랑의 뼈들', '편향의 곧은 나무' 등을 펴냈다.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구경북작가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